



어버이날과 효 사랑 교육의 실천

정 기 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5월 8일은 제53회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은 효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효 교육의 날이어야 한다. 전국 시도에서는 범시민적 효 사상 앙양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와 이웃에 모범이 되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효 실천 및 노인복지 기여 단체를 발굴 표창·격려하여 효 사상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는 자녀이면서 어버이다. 그러므로 어버이날 내가 부모님께 효도 하면서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는 날이 어버이날이어야 한다. 교육의 근본은 효이며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크게 성공했어도 부모님께 효도할 줄 모르는 자녀를 두었다면 교육에 실패한 것이다.

효 교육은 전통적으로 가정이 주축이 되어 실천해 오고 있으며 효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행으로써 한 교육이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효심을 부러워하고 있다.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우리 민족의 효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효는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이고 사랑은 행으로써 부모를 도와주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효 사랑 교육은 대가족제도의 가정 사회에서 부모가 조부모에게 하는 효행을 그대로 자녀가 보고 익히는 전통문화에서 이루어져 왔다. 요즘은 핵가족 제도로 가정문화가 바뀌고 있고 자녀가 웃어른인 조부모와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부모가 효행을 자녀에게 보여줄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말로서의 효 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부모가 먼저 효도하는 것을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

흔히는 자기의 부족함을 부모 탓이나 조상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상 훌륭한 사람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태어났고 부모에 효성이 지극한 효자들이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상원에서 링컨의 부모 직업인 구두 수선공임을 아우하는 상원들에 "우리 부친이 만든 구두가 잘못 만들어졌다면 내가 수선해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지극히 공경한다

가족을 지키는 작은 실천, 아파트 화재 예방에서 시작된다



약세대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주민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기장판 안전하게 쓰기 캠페인'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정기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결국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다.

'불 나면 대피 먼저'라는 말처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보다 더 중요한 건 미리 준비된 안전 환경과 인식의 변화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공동체로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오늘도 우리 아파트,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박 경 수 신안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간을 함께 쓰는 아파트는 편리함이 크지만 그만큼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생활 공간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주방 가스 불조심, 전기제품 과열, 베란다 적치물 화재 등 작은 부주의로 인한 아파트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복도나 계단에 쌓인 자전거, 폐가구 등은 화재 상황에서 대피를 막아 피해를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된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라 방심에서 시작되는 습관의 결과다. 이에 따라 아파트 화재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우선 전 가구에 대해 주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화재 대피 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 등 취약

초고령 사회 진입, 고령자 교통안전이 생명입니다

이 성 춘 무안경찰서 교통과 경정



무안군은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1.9%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남약·오룡을 제외한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이 35%를 넘으며,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3년간 무안군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71.4%가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이륜차 및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자의 85% 또한 고령층이 차지했다. 사고는 주로 이른 새벽 어두운 시간대와 활동이 많은 낮 시간대(14~16시)에 집중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 수칙 미준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무안경찰서는 교통과와 지역경찰이 적극 협력하여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대 실천 수칙'을 적극 홍보 하고 있다. 횡단보도 무단횡단 금지, 밝은 옷과 반사조끼 착용, 이륜차·농기계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야간 외출 자제, 교차로·골목길에서는 반드시 정지 후 좌우 살피기 등을 생활 속 실천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치매 어르신 지원 제도 안내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지원사 등 지역 사회 복지 인력과 협력하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 무안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고령자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고음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 순 열 편집국장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전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애프레스